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진달래꽃(1925)>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3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시적 화자의 심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걱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 ④ 부름의 형식에 시적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투영되었다.
- ⑤ 시적 화자의 상실감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의 절제가 드러난다.
- ② 인생에 대한 관조가 드러난다.
- ③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 ④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과 비교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배요 아배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배도 알지려요
등잔불도 없는 제삿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배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배 소원 풀어드리련만
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아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도 감응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 느껴 세상에선 굶은 밤이슬이 온다.
- 박목월, <반술 아비의 축문(祝文)>

[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
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
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
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종이염을 얹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
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

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령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령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뺏손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령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다 주인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의 투가리를 툭, 부딪쳤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령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 '눈물은 왜 짠가'

- 함민복, <눈물은 왜 짠가>

[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먼저 통명스러운 듯, 매물찬 듯한 그 목소리가 떠오른다. 그리고 찢어져라 흘기는 그 사금파리 같은 눈빛이 떠오른다.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부드러운 어법이 아니라 매물찬 목소리, 정을 푹 때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썼다. 아, ㉡ 어머니는 반어법의 명수였다.

어렸을 때 나는 기골이 약해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게 힘이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밥을 남기는 걸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다. 밥그릇을 반쯤 비우고 손가락질이 시원찮다 싶으면, 어머니는 나쁜 계모 같은 눈빛이 되면서 내 밥그릇에 냉큼 물을 부었다. '다 먹어라 잉.' 통명스럽게 어머니는 말했다. 물 말아 놓은 밥을 남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려고 어머니는 짐짓 골난 표정을 짓곤했다.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눈빛이었다면 나는 아마 어머니에게 저항했을 것이다. 매물찬 표정 뒤의 어머니 사랑이 사실은 너무나 뜨거웠다는 걸 내가 이해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략> 어머니는 가난한 게 한이었다. '손가락 꽃아도 안 자빠지게 고깃국 한 그릇 먹고 싶다.' 라고 어머니가 했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국그릇 속에 고기가 많이 들어 손가락을 꽃아 놓아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고깃국 한 그릇 번번히 먹어 본 일이 없던 어머니였다. 남자 대신 농사지으랴, 다섯 아이 ㉢ 거두랴, 사시사철 바쁘고 힘들어도 아들자식 하나 쌀밥 먹이기도 힘들어 어머니는 늘 보리밥이었다. <중략>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으나 내심으로는 심약하기 이를 데 없었던 어머니로서는 살림과 아이 다섯 꾸러가기에 허구한 날 가슴이 타고 등뼈가 휘었다. 얼마나 많은 날 등, 많은 순간들, 어머니는 매사에 두려워 떨고 또 고독했었던 것일까.

때론 매물차기 그지없었던 어머니의 표정은, 그러므로 방어용으로 불가피하게 어머니가 만들어 썼던, 일종의 가면이었다.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이었다.

- 박범신, <반어법의 명수>

3. [가]~[다] 세 작품을 한데 묶어 책으로 발간하려고 한다. 책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을 추억하며
- ② 이별의 슬픔을 견디며
- ③ 완전한 사랑에 대한 소망
- ④ 세상을 밝힌 넉넉한 사랑의 힘
- ⑤ 유년 시절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4.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연의 화자를 달리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사투리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박한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③ 주로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구어체의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정감 있는 느낌을 살리고 있다.
- ⑤ 동일한 어휘를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이 애뜻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 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5.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과 유리된 이상적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
- ② 자연 현상의 참된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불교의 윤회 사상을 정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⑤ 설의법으로 대상에 대한 신비감을 형성하고 있다.

6. 이 시에서 의문형과 경어법을 사용한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의문형	경어법
-----	-----

- | | |
|---------------------------------|----------------|
| ① 독자의 호기심 유발 | 상대방에 대한 사랑 |
| ② 탐구 노력의 진지함 강조 | 상대방에 대한 경멸 |
| ③ 존재에 대한 신비감 강조, 상대방에 대한 경외감 표현 | |
| ④ 존재에 대한 허무함 강조, 상대방에 대한 도전성 표현 | |
| ⑤ 존재의 불확실함 강조 | 상대방에 대한 친근함 표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고십니까?¹⁾

깊은 삼림대(森林帶)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 1~4연 :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갈망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산비탈 언저리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물고 돌아옵니다.
▶ 5~7연 : 한가롭고 순결한 삶에 대한 갈망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²⁾ 비가 내리면,
쟁 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또옥뚝 따지 않으렵니까?
▶ 8~10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
[어휘 풀이] 1) 알고십니까 : ‘아십니까’가 바른 표현. 시적 허용. 2) 출출히 : 비 따위가 조금씩 넘치는 모양

7. 이 시의 성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원적 ② 현실적 ③ 낭만적
- ④ 자연적 ⑤ 목가적

8. 이 시를 교재에 실으려고 할 때, 표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 ② 상실한 사랑에 대한 추억
- ③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
- ④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
- ⑤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 등 구간(九干)이 있었다. 이 주장들이 백성을 아울러 다스렸으니, 모두 백 호에 칠만 오천 명이었다. 대부분이 저마다 산과 들에 모여 살았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후한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년(A.D. 42년) 3월 계육일(禊浴日)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龜旨峯) — 이는 산봉우리의 이름인데, 마치 십봉(十朋)이 엮드려 있는 형상이므로 이렇게 부른다. — 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무리 이삼백 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이 말했다.
 “우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간이 다시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 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면서

[A]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네 목을 내밀어라.
	若不現也	만약 내밀지 않으면
	燔炸而喫也	구워 먹겠다.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기뻐 춤추게 되리라.”
 구간은 그 말대로 하면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춧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

와 땅에 달았다.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합(金盒)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서 허리를 굽혀 백 번 절하고, 얼마 후 다시 금합을 싸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와 탑 위에 두고 제각기 흠어졌다.

12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 보니 여섯 개의 알은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 그들을 평상에 앉혀 절하며 축하하고 지극히 공경했다. 그들은 나날이 자라서 열흘 남짓 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어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같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漢)나라의 고조(高祖)와 같았고, 눈썹의 여덟 색채가 요(堯)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이 순(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즉위했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首露) 혹은 수릉(首陵) — 죽은 후의 시호 — 이라 했다. 나라를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국(伽倻國)이라 부르니, 바로 여섯 가야 중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 지은이 모름, '가락국 신화'

9. ㉠~㉤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 ㉡ '구간'이라는 이름의 개인이 창작한 것이다.
- ㉢ 가락국의 건국 과정을 다룬 신화에 해당한다.
- ㉣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성격이 강한 이야기이다.
- ㉤ 운문과 산문이 나뉘어 있는 원시 종합 예술이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10.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왕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니까 의식요로 볼 수 있겠어.
- ② 흙을 파내면서 노래했으니까 노동요의 성격이 강하겠네.
- ③ 청자를 호명하여 주위를 환기하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
- ④ 개인의 진솔한 감정을 독백체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
- ⑤ 노래를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의도로 부른 것이네.

온달(溫達)은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 사람이다. 용모는 구부정하여 우스꽝스러웠지만, 속마음은 환하게 빛났다. 집이 매우 가난하매 늘 음식을 구걸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찢어진 적삼과 해진 신발로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희롱해 말하기를 “㉠ 네가 늘 울어 대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가리라.”라고 하였다. 왕이 매번 그렇게 말하더니, 딸의 나이 16세가 되자 상부(上部)의 고 씨에게로 시집보내고자 하였다. 이에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食言)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극히 존귀한 왕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에게는 농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왕의 명령은 잘못이므로 저는 감히 받들어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도다. 어찌 함께 살겠느냐? 마땅히 네가 갈 데로 가거라.”

이에 공주가 보석 팔찌 수십 매를 팔꿈치 뒤에 매고 궁궐을 나와 홀로 길을 떠났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보았다. 이윽고 그 집에 이르러 눈먼 늙은 어머니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인사하고 아들이 어디 있는가를 여쭙었다.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내 아이는 가난하고 비루하여 귀한 분이 가까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냄새를 맡아 보니 향내가 특이하고 그대의 손을 만져 보니 매끄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일 것입니다.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 이곳까지 왔습니까? 내 아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산림 속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가 오래인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가 집을 나와 걸어서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메고 오는 것을 보았다. 공주가 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온달은 발끈해 말하기를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니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마침내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렸다. 공주는 혼자 돌아와 사립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들어가 온달 모자에게 자세하게 갖추어 이야기하였다. 온달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 아이는 지극히 비루하여 귀인의 배필이 되기에 부족하고, 우리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진실로 귀인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공주가 대답하였다.
“㉡ 옛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이라도 방아 짚을 수 있으며,

한 척의 베라도 바느질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진실로 마음을 같이한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다음에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윽고 금팔찌를 팔아 밭과 집과 노비와 소와 말과 그릇을 사서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 ㉢ 처음 말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일러 말하기를 “삼가 시장 사람의 말을 사지 마시고, 모름지기 국마(國馬) 가운데 병들고 파리해져 쫓겨난 말을 골라 사십시오.”라고 하였다. 온달이 그 말대로 하였다. 공주가 매우 부지런히 먹고 기르니, 말이 날로 살찌고 늙름해졌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해서, 그때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귀신에게 제사하였다. 그날이 되어 왕이 사냥을 나가매, 여러 신하와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갔다. 이에 온달도 그동안 기른 말을 타고 행차를 따라갔는데, 그의 말 달리는 것이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섰고, 잡은 짐승도 역시 많아서 견줄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오게 하여 성명을 묻더니,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즈음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군사를 내 요동에 쳐들어오자,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배산(拜山)의 들에서 막아 싸웠다. 온달이 선봉이 되어 날래게 싸워 수십여 명의 목을 베니, 여러 부대가 승세를 타고 맹렬히 싸워 크게 이겼다. 공로를 논할 때 온달을 제일로 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왕이 가상히 여겨 찬탄하면서 “이야말로 내 사위로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했으며, 작위를 내려 대형(大兄)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총애와 영예가 더욱 높아지고 위세와 권위가 날로 융성해졌다.

양강왕(陽岡王)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 한수 이북의 땅을 베어 가서 군·현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통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 번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하오니 대왕께서는 저 [A] 를 어리석고 어질지 못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내주시어 한번 쳐들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되돌려오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출정에 임해 맹세하기를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이서 지역을 우리에게 되돌려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라고 하였다.

마침내 떠나가 아단성(阿朶城) 아래에서 신라군과 싸웠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넘어져 죽고 말았다.

장사를 치르고자 해도 관이 여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와 관을 어루만지면서 “죽고 사는 것이 정해졌으니, 아아!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야 마침내 들어서 하관하였다. 대왕이 듣고 비통해하였다.

11.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온달은 어릴 때부터 빈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 ② 진평왕은 평강이 온달에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 ③ 온달은 공주인 평강을 보자마자 갖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했다.

- ④ 온달은 평강이 국마를 사오라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 ⑤ 온달은 양강왕의 부탁으로 신라 군사를 물리치려 아단성 싸움에 나섰다.

12. [A]에 나타난 ‘온달’의 말하기 방식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대방이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게 하고 있다.
- ㄴ. 부당한 현실을 언급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역 설하고 있다.
- ㄷ.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을 반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ㄹ.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현부(玄夫)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선조는 신인(神人)이었다. 그 형제가 열다섯 명이었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굉장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명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다섯 산을 떠나려가지 않게 떠받치게 했다.”
 라고 한다. 그 후 대대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차츰 작아지고 또한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센 자도 없었으며, 오직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현부는 한곳에 머물지 않고 사는 곳을 가려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의 출신 고향이나 조상들의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의 먼 조상 중에 문갑(文甲)이란 자가 있는데, 요임금 시대에 낙수(洛水)에 살았다. 요임금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흰 옥을 예물로 그를 초빙하자 그가 기이한 그림을 지고 와서 바쳤다. 요임금이 [A] 그를 가상히 여기어 낙수의 제후로 봉하였다. 그의 증조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바로 흥범구주를 지고 와서 우임금에게 바쳤던 자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백약(白若)이다. 그는 우임금 시대에 곤오(昆吾)라는 곳에서 술을 주조하였는데 웅난(熊男)과 함께 힘써 공을 세웠다. 아버지의 이름은 중광(重光)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나는 달의 아들 중광인데, 나를 얻으면 서민은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을 중광이라 하였다.
 현부는 아주 침착하고 도량이 컸다. ㉠ 그의 어머니가 요광성이 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하였는데, 태어났을 때 관상쟁이가 보고 말하기를,
 “등은 산과 같고 거기에 별들이 아롱아롱 무늬를 이루었으니 신령스러운 관상임이 분명하다.”
 라고 하였다. 장성하자 주역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의 모든 변화의 원리를 터득하였고, 또한 갖가지 신선의 방술을 배웠다. 그는 천성이 씩씩함을 좋아하여 언제나 갑옷을 입고 다녔다.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심부름꾼을 보내어 불렀으나 거만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기를,
 “㉡ 진흙 속에서 노니는 재미가 끝이 없는데, 벼슬살이를 내가 왜 바라겠는가?”
 하고 웃기만 하고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를 불러들이지 못했다.
 그 뒤 춘추 전국 시대 송나라 원왕 때 예저(預且)라는 어부가 그를 사로잡아 강제로 임금에게 바치려 하였다. 그때 그가 검은 옷에 수레를 타고 왕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청강에서 보낸 사자인데 왕을 뵈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과연 예저가 그를 데리고 와서 왕께 보였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저의 강압에 의한 것이요,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일 뿐이니, 벼슬은 제 본심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어찌 저를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하였다.
 왕이 그를 보내 주려 하는데 위평(衛平)이 은밀히 눈짓하여 말렸다. 그래서 그를 수형승에 임명하였고, 얼마 뒤 벼슬을 올려 도수사자에 제수하였다. 다시 발탁하여 태사령을 삼고, 나랏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본 뒤에 시행하였다.
 왕이 일찍이 장난말로 이르기를, “그대는 신명의 후손으로 길흉화복에 밝은 자인데, 왜 스스로 미리 자신의 앞길을 도모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서 과인에게 붙들린 신세가 되었는가?”
 하니, 현부가 아뢰기를,
 “㉢ 아무리 밝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명철한지혜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뢰니, 왕이 크게 웃었다. 그 후 그가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벼슬아치들 사이에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그의 모양을 주조해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현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원서, 둘째는 원저라고 했다. 셋째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큰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현부의 후손 가운데에는 도를 얻어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푸른 구름이 감돌았다. 또 자기의 덕을 숨긴 채 벼슬살이를 했던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현의독우라 불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평한다.

“지극히 은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펴 알고,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이다. 현부 같은 지혜를 가지고도 예저의 술책을 피하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옛적에 공자는 광(匡)이라는 곳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제자인 자로(子路)는 죽어서 젖으로 담겨지는 비극을 겪었으니, 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13.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동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 ② 우의적인 방법으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 간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⑤ 인물에 대한 평가를 인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14. 이 글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의 가계와 조상을 주로 소개한다.
- ② 중심인물에 얽힌 경험담을 주로 소개한다.
- ③ 중심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주로 소개한다.
- ④ 중심인물의 교우 관계에 대해 주로 소개한다.
- ⑤ 중심인물의 삶의 태도에 대해 주로 소개한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④

화자는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억제하지 못하여 격정적인 어조로 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체념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 <답> ⑤

이 시는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 박목월, <만술 아버지의 축문(祝文)>

• 해제 : 이 작품은 현세적 삶을 넘어서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오가는 정(情)의 교감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속신에 바탕을 둔 인정의 세계는 ‘한’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화자는 정성과 효심이 넘치지만 무식하고 가난한 농민이기에, 그가 차릴 수 있는 제사상은 소금에 밥 한 그릇뿐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아버지에게 전달된다. 저승에서 제사상을 받으러 찾아온 아버지의 망령은 아들의 정성에 감동받아 저승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붉은 눈물을 흘린다.

• 주제 : 아버지에 대한 사랑

• 구성

1연 :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

2연 : 아들의 정성에 대한 아버지의 감응

※ 함민복, <눈물은 왜 짠가>

• 해제 : 함민복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시집에 들어 있는 작품으로, ‘가난’과 ‘어머니’라는 상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뜨거운 인간애를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설렁탕집을 배경으로 하여 모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뜻한 사랑과, 설렁탕집 주인아저씨에게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인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 주제 :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 박범신, <반어법의 명수>

• 해제 : 어머니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크다. 매정한 눈빛과 단호한 표정으로 호령해도 그것이 자식 사랑의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른이 되고 나서이다. 살아생전 호의호식(好衣好食)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만을 힘들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글이다.

• 주제 : 어머니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3) <답> ①

[가]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나]에는 지난 여름 ‘설렁탕’에 얽힌 어머니와의 추억이, [다]에는 살아생전 엄격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드러나 있다.

4) <답> ③

이 시에는 후각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5) <답> ①

이 시의 시적 화자는 현실 속에서 임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6) <답> ③

임의 존재의 신비함을 강조한다.

7) <답> ②

이 시는 이상향을 동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이다.

8) <답> ①

이 시는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이 시는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9) <답> ③

㉠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년(A.D. 42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북쪽 구지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도 나타난다.

㉡ 이 글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의 탄생과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하늘에서 금합이 내려오고, 알에서 신성한 인물이 태어나는 등 비현실적인 성격이 강하다.

㉣ 이 글에서 노래를 부른 ‘구간’은 개인이 아니다.

㉤ 원시 종합 예술은 시가와 무용, 음악이 분화되지 않은 집단적 가무의 형태이다.

10) <답> ④

개인의 진솔한 감정을 독백체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의식을 담아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른 노래이다.

① 하늘의 소리에 따라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부른 노래이므로 의식요로 볼 수 있다.

② 봉우리 꼭대기의 흠을 파내면서 부른 노래이므로 노동요의 성격이 강하다.

③ 첫 구에서 노래의 청자인 ‘거북’을 부르면서 주위를

환기하고 노래를 시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⑤ 노래를 불러서 임금을 맞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11) <답> ④

평강은 온달의 집에 들어 온 후 국마를 사오라고 하는데 온달은 이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국마를 사온다.

① 온달이 어릴 때부터 빈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 없다.

② 진평왕이 평강이 온달에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온달은 공주인 평강을 보자마자 갖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박을 한다.

⑤ 온달이 양강왕에게 부탁해 신라 군사를 물리치려 아단성 싸움에 나섰다.

12) <답> ④

[A]에서는 온달이 백성들이 겪는 통한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ㄴ), 또한 온달은 군사를 주면 자신이 잃어버린 땅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다(ㄹ).

13) <답> ④

14) <답> ①